

지속가능한 미래 순천교육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방안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2021년 5월 20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 온빛교육심리연구소

교육 대전환의 파도와 순천의 3E 비전

모드3(Mode 3) 사회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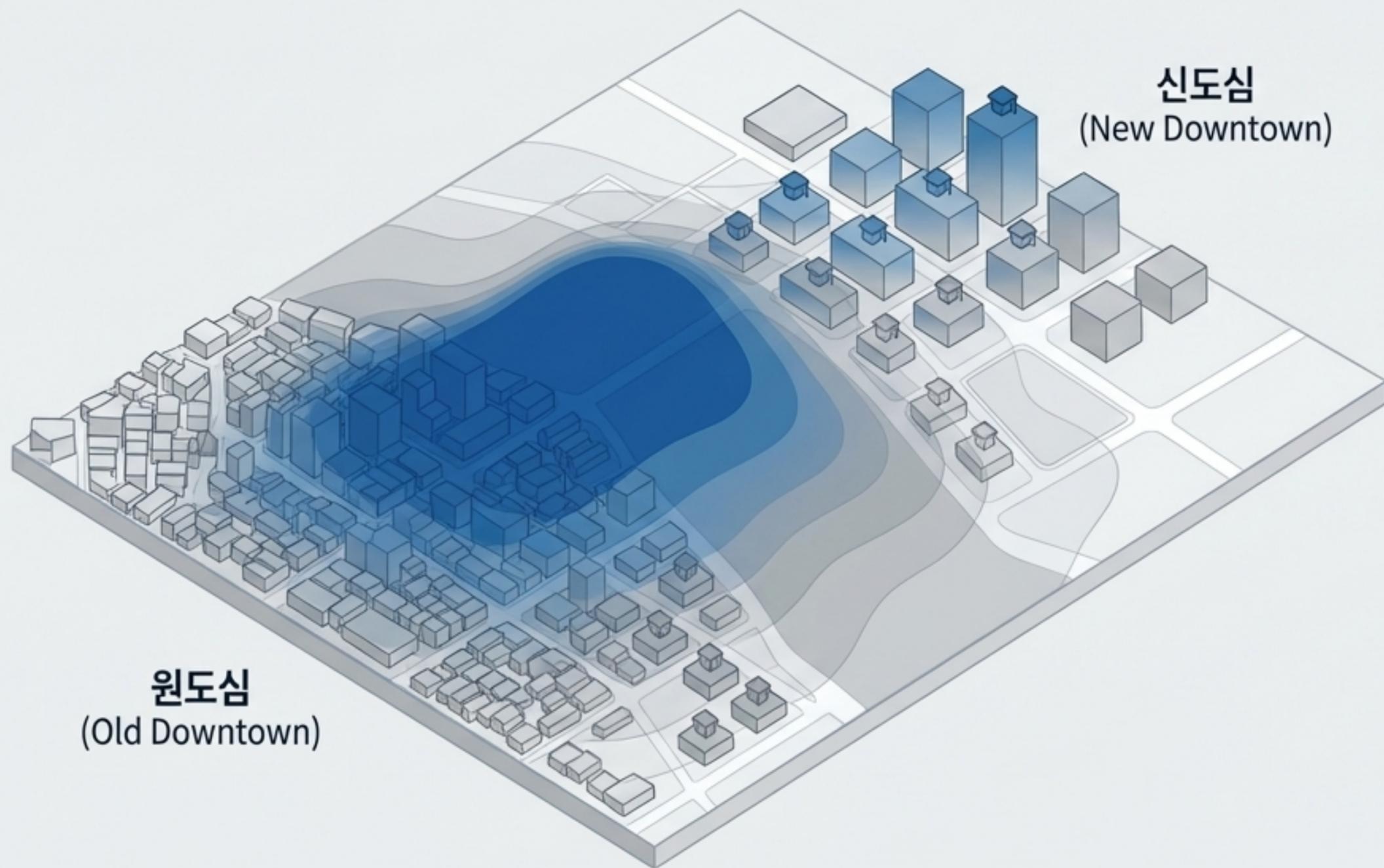
경쟁과 표준화의 틀에서 벗어나
협동, 개별화, 평생학습을
중시하는 시민공동체 중심의
교육 생태계로 진화합니다.



순천형 3E 평생교육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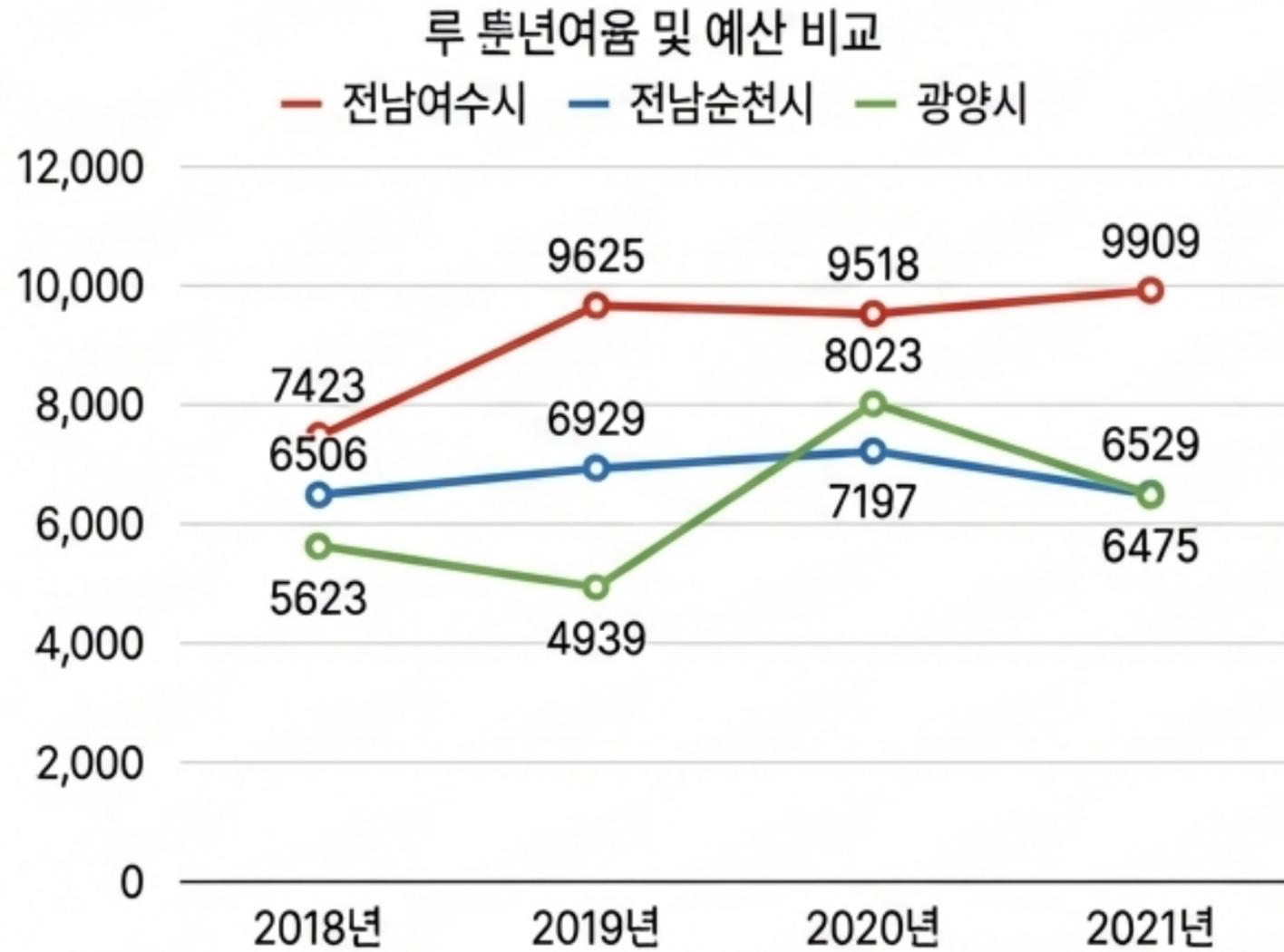
교육(Education)을 매개로
생태(Ecology)와
경제(Economy)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한 순천만의
지역혁신 모델입니다.

위기 진단: 다가오는 학령인구 감소의 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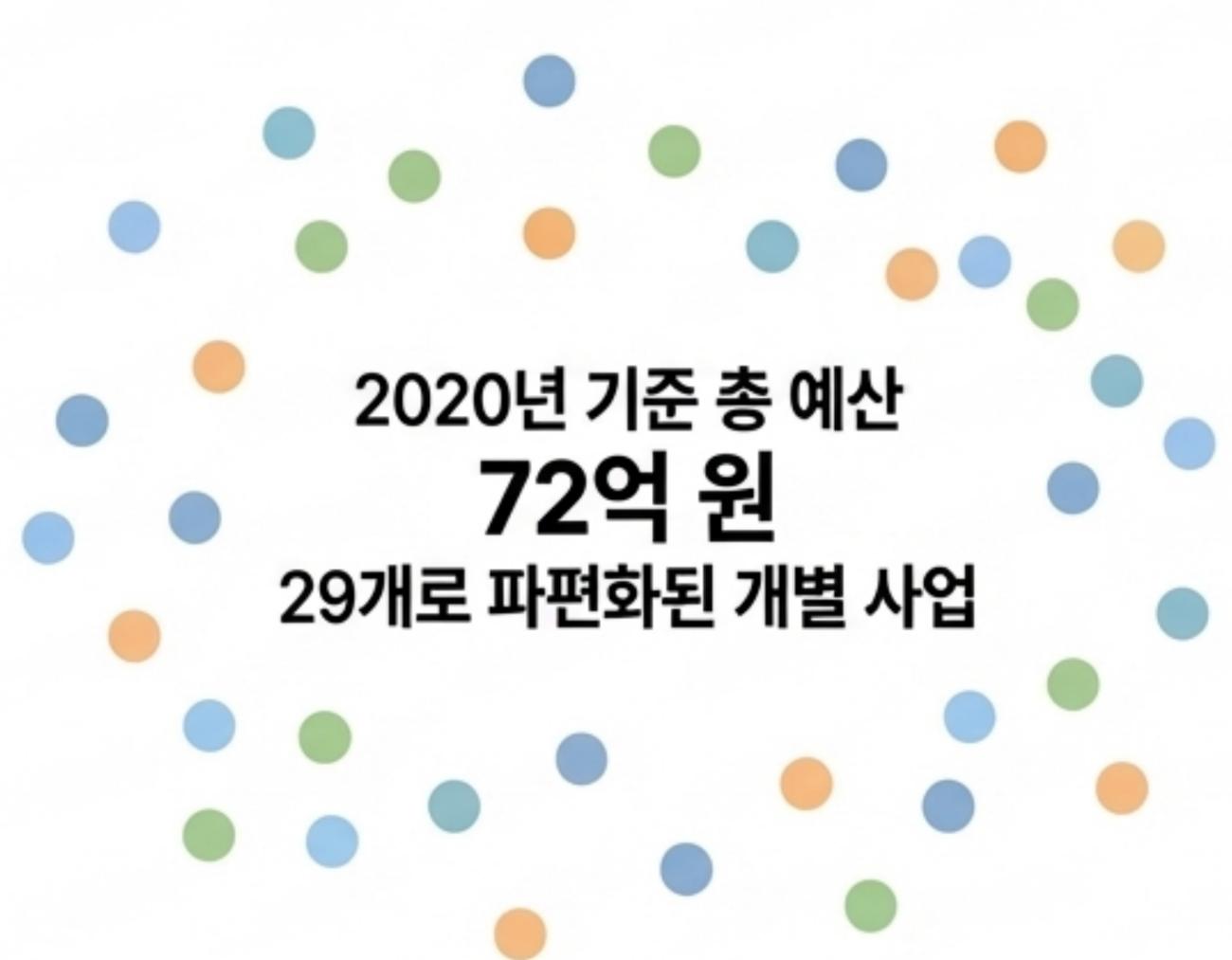


- **전남 학령인구 지속 감소**
도내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작은학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 파동의 확산**
원도심에서 시작된 유치원 및 초등 인구 감소 추세가 신도심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 **생태계적 대응 시급**
단일 학교 단위의 대응을 넘어, 학생 유입과 지역 정주를 위한 지역사회 전체의 거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천시 교육경비 지원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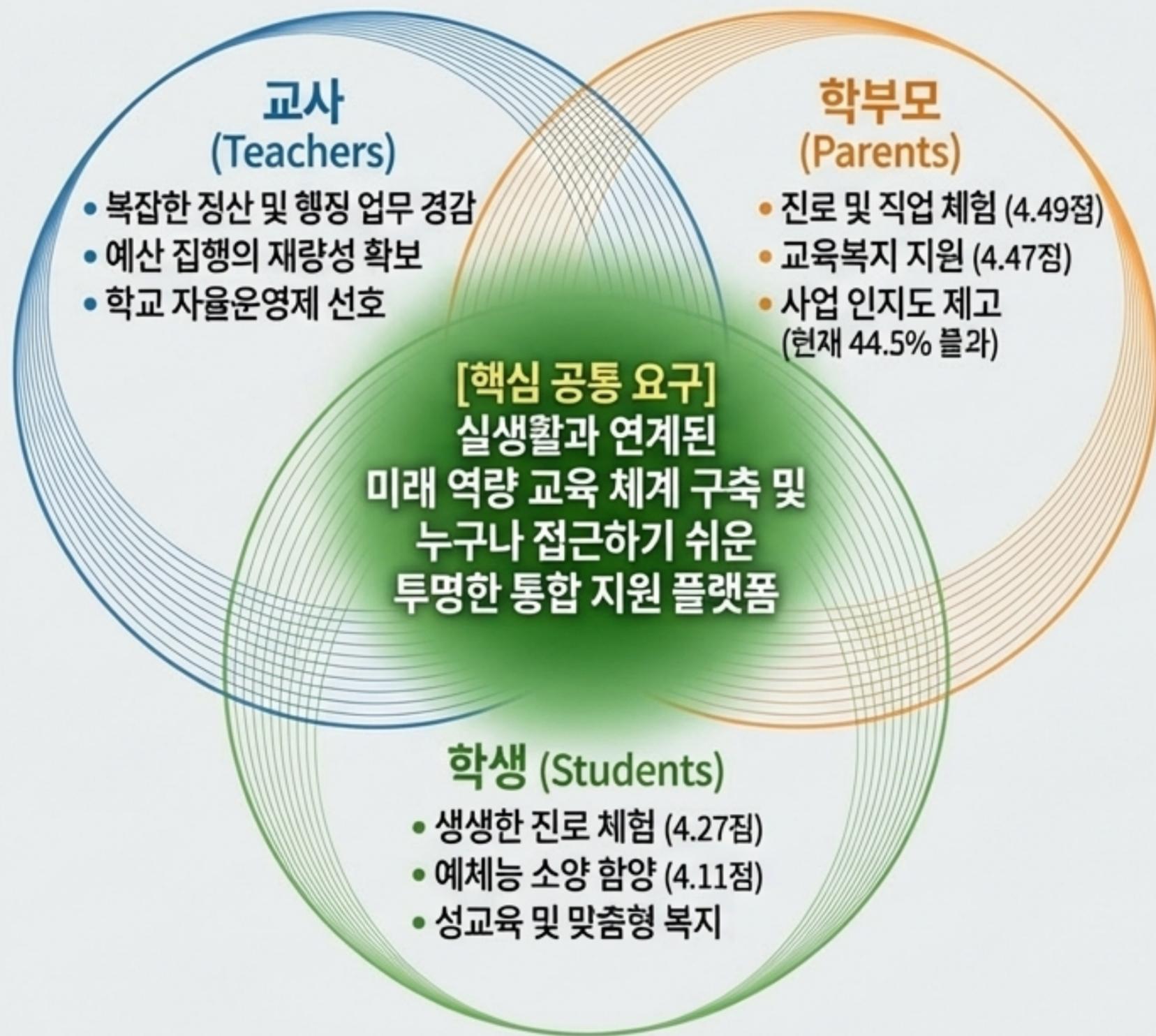


학생 1인당 지원액 비교 (2020년 기준)
 광양시: 42만 원 | 여수시: 29만 원 | 순천시: 19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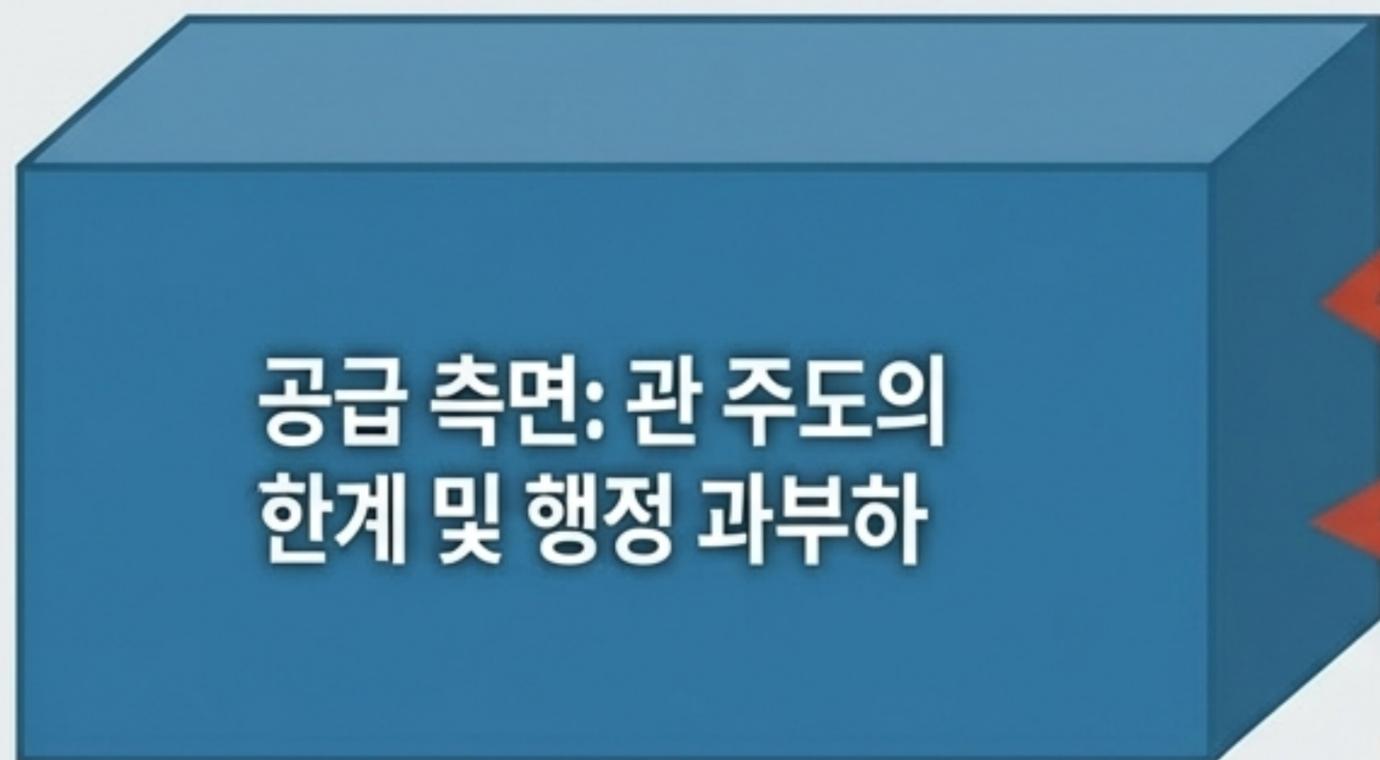


Insight: 예산의 절대적 규모 확충과 더불어, 29개로 흩어진 파편화된 사업을 하나로 꿰어내는 '선택과 집중'의 거버넌스 전략이 절실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이해관계자 니즈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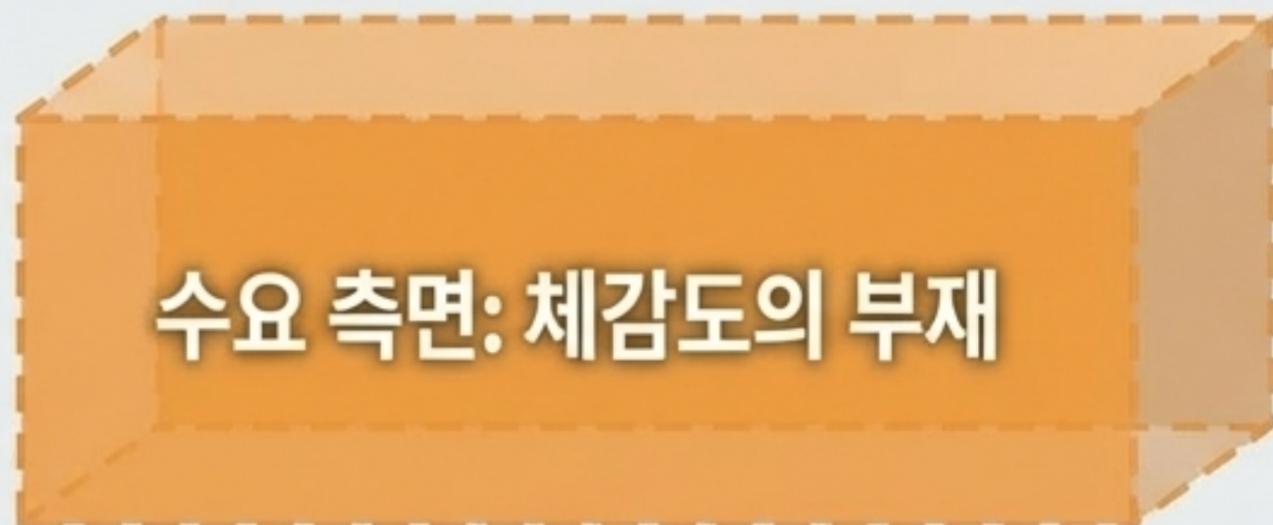


질적 통찰: 현재 시스템 내의 마찰음



구조적 마찰 (Structural Friction)

좋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공급자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수요자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비효율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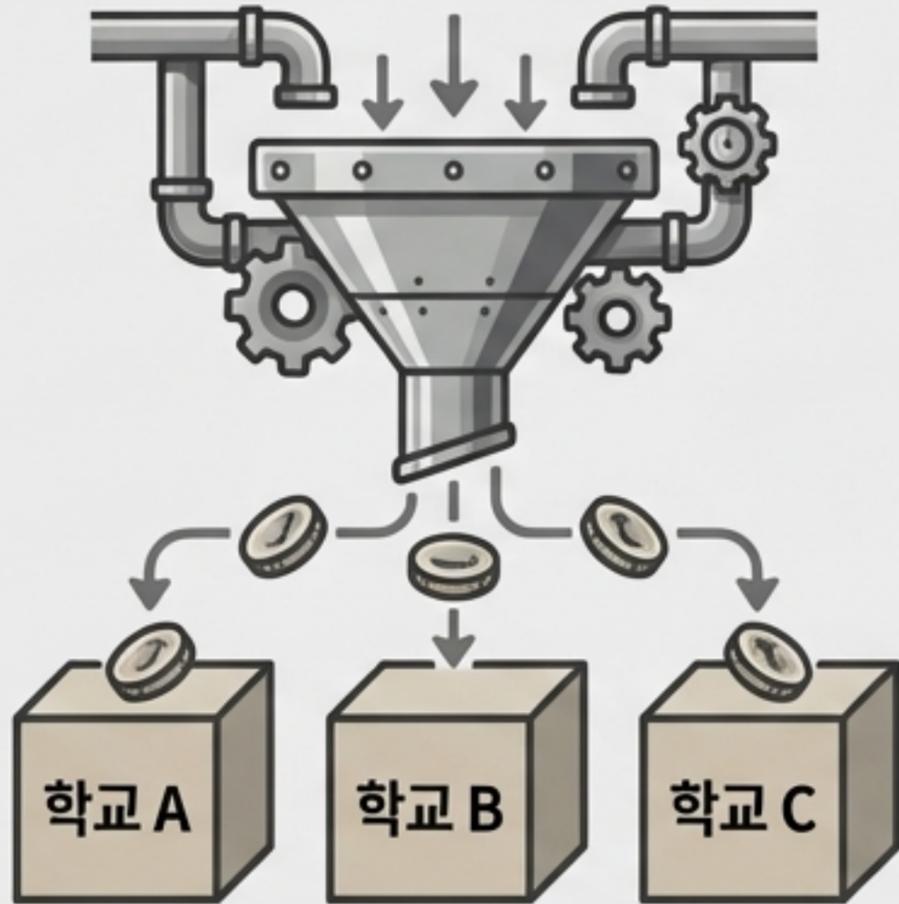


-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부재로 인한 사업 중복
-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주의에 매몰
- 훌륭한 목적의 사업도 '신청-운영-정산'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교사들의 기피 업무로 전락

- 학부모의 55.5%가 지자체 교육지원 사업의 존재조차 알지 못함
- 학생과 학부모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지원 체계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 '단순 지원'에서 '생태계 거버넌스'로

[과거] 단순 예산 분배 (비용/소비)



- 개별 학교 단위의 소비적 예산 집행
- 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지시
- 영수증 증빙 기반의 소모적 행정 정산

패러다임 대전환
(Paradigm Shift)

[미래] 지역 교육생태계 (투자/성장)



- 마을, 학교, 지자체가 연계된 미래 투자적 예산
- 현장 중심의 바텀업(Bottom-Up) 자율 기획
-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적 교육 가치 창출

순천형 교육자치의 3대 핵심 과제



-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지원
- 창의·융합형 리더러시 함양
-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협력 사업

-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격차 해소
- 맞춤형 교육복지 제공
- 공정한 출발점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 민·관·학 교육협력체제 활성화
- 학습자 중심 순천형 교육과정 운영
-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공동체 구축

단기 개선 방안 1: 사업 영역의 대통합과 재정

과거의 틀 (기존 8대 분야)

1.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2. 외국어 교육기반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조성 사업
4.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
5. 진학지원 및 영재육성 지원 사업
6.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사업
7.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공동체 함양 프로그램 지원 사업
8.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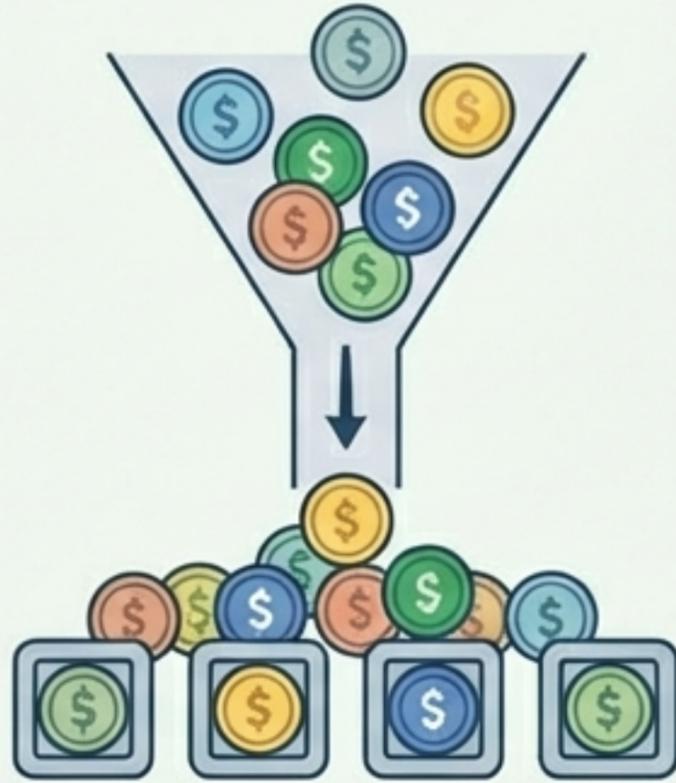
미래의 틀 (새로운 8대 분야)

1. 창의·인성(미래핵심역량) 교육 지원
2. 외국어 교육(세계시민교육) 지원
3. 학생성장단계별 특화교육 지원
4. 교육여건 조성
5. 학습격차 해소
6. 교육복지
7. 교육 거버넌스 구축
8. 지역사회 연계 들뜸/방과후 운영 지원
9. 지역 특화 교육과정

Insight: 모호하고 분절되었던 과거의 기준을 탈피하여, 학생의 성장 주기와 미래 역량에 맞춘 통합적 캔버스로 지원 영역을 전면 재배치합니다.

단기 개선 방안 2: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도입

현행: 하향식 배분 (Top-Down)



-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예산 지원
- 학교 고유의 특성과 무관한 맹목적 배분
- 개별 사업마다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 소요 및 피로감

개선: 학교자율사업선택제 (Bottom-Up)



- 3E 비전과 연계된 특화사업 풀(Pool) 제공
- 학교가 자신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 총액 교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 및 정산 부담 대폭 축소

기대 효과: 교사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 대신 본연의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은 자기 학교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품질 교육을 누리게 됩니다.

단기 개선 방안 3: 통합적 질 관리 체계 (CIPP 모형)

영수증 정산에서 가치 평가로의 전환

단순히 '예산을 규정대로 소진했는가'를 확인하는 행정적 감시를 넘어, 해당 사업이 지역 교육 생태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과 가치'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맥락 (Context)

지역의 실제 요구와 3E 비전에 정확히 부합하는가?

투입 (Input)

인적, 물적 자원과 예산이 현장에 적절히 배분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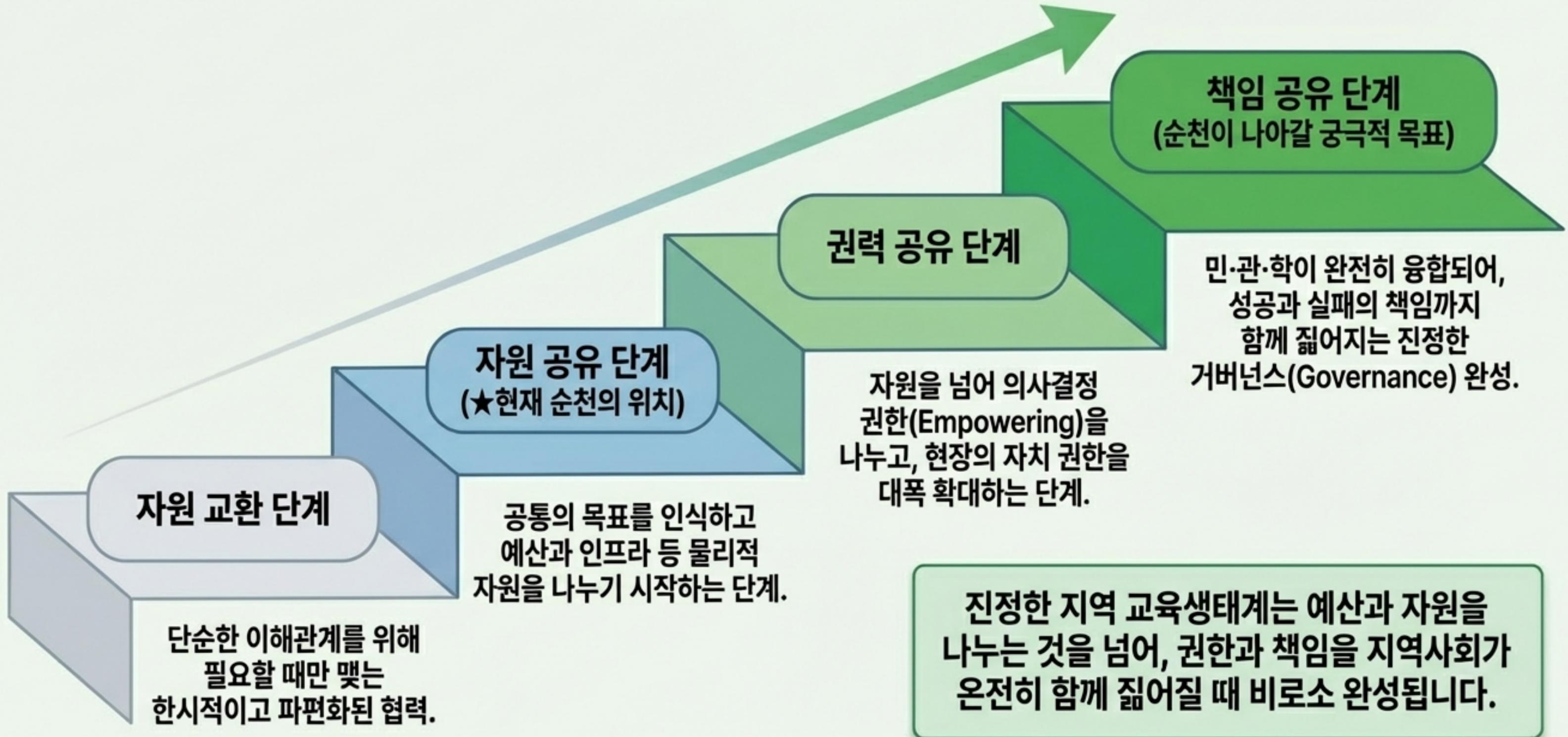
과정 (Process)

실행 과정에서 민·관·학의 협력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가?

산출 (Product)

궁극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돕고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는가?

중장기 개선 방안 1: 교육거버넌스의 진화 단계



중장기 개선 방안 2:

다원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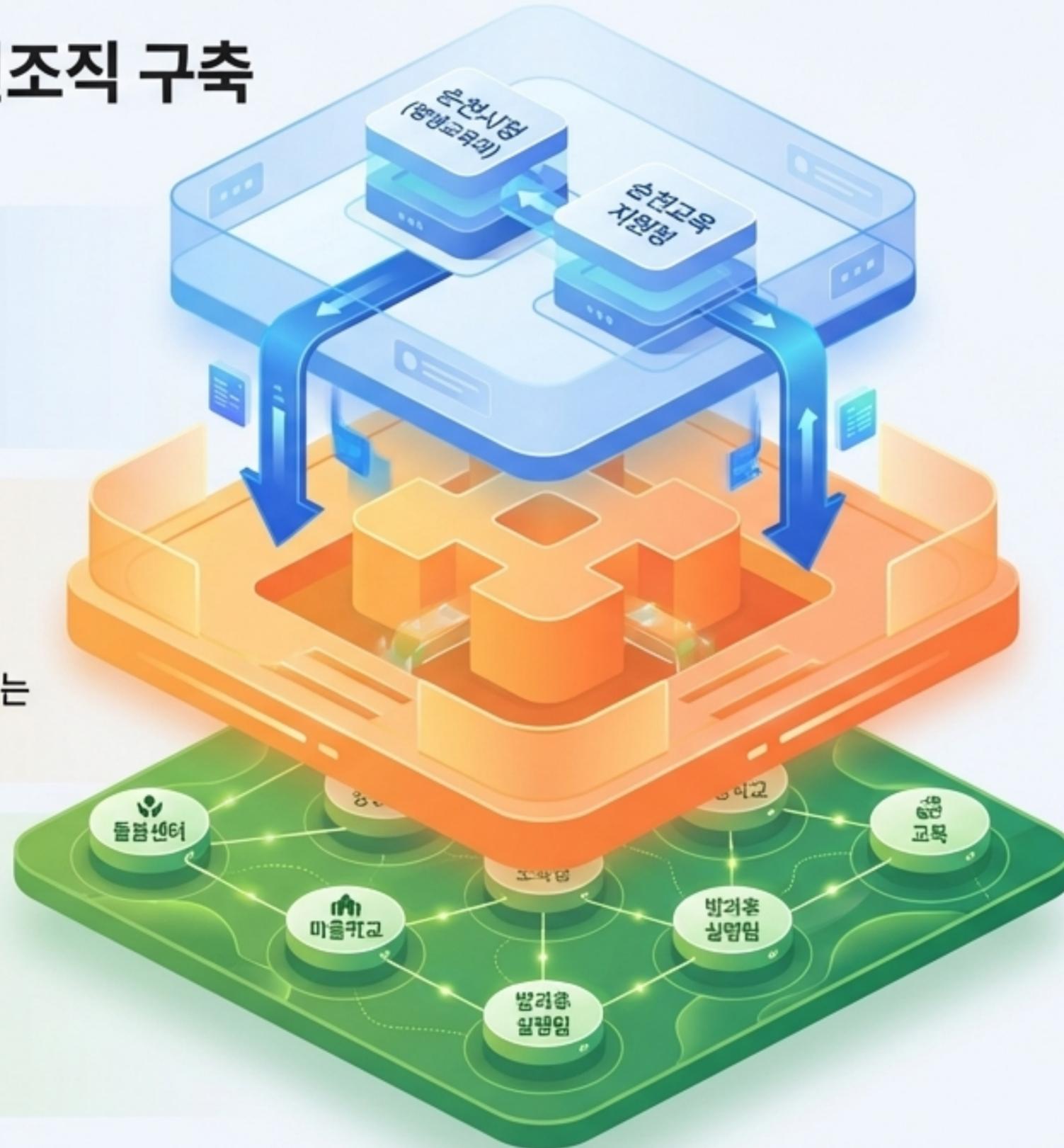
행·재정 지원 그룹

다원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플랫폼)

시청과 교육청의 칸막이를 없애고
행·재정적 자원을 통합 관리·기획하는
민·관·학 교육협력의 핵심 허브.

풀뿌리 현장 노드 (실행 그룹)

사안과 지역 요구에 맞게 유연하게
결합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실행하는 풀뿌리 조직.



기대 효과:

복잡한 상위 행정은 단일
플랫폼으로 단순화하고,
하위 현장의 실행력과
자율성은 극대화하는
혁신적 아키텍처입니다.

중장기 개선 방안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3단계: 전담 독립기구의 설립

단순한 민간 위탁을 넘어,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의 '교육재단' 또는 지자체 내 전담 직영 센터로 발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영구히 보장합니다.

2단계: 교육투자 예산의 명문화

정치적 변화나 행정 개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자체 세수의 일정 비율(예: 5~7%)을 교육협력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명문화합니다.

1단계: 조례 통합 및 개정

분절되어 있던 기존 교육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거버넌스 활동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조례
(강력한 법적 기반)

비전 선포: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순천

순천의 교육경비는 단순한 '비용(Cost)'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키워내는
가장 확실한 '투자(Investment)'입니다.

행정의 낯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하나의 거대한 배움터가 되는
순천의 푸른 숲을 우리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